

# 광양여고 4인방 “14년만의 U-20 월드컵 4강 재현한다”

### 주장 조혜영·졸업생 최한빈·정다빈·조어진 필승 각오 다져 ‘박윤정호’ 9월 2일부터 나이지리아·독일 등과 조별리그

광양여고 축구부 소속·출신 선수들이 2024 국제 축구연맹(FIFA) U-20 여자 월드컵 승리를 위해 뭉쳤다.

U-20 여자월드컵 대표팀은 9월 1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막하는 이번 대회를 위해 지난 19일 출국했다.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인 박윤정 감독이 사령탑으로 이끄는 대표팀은 14년 만의 ‘4강 재현’을 꿈꾸며 결전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조별리그 D조에 속한 한국은 16강행 티켓을 두고 나이지리아(9월 2일 오전 8시·이하 한국시간), 베네수엘라(9월 5일 오전 10시), 독일(9월 8일 오전 5시)과 맞붙는다.

광양여고 선수가 승리를 위한 전면에 나선다.

이번 대표팀에는 광양여고 축구부 주장 조혜영(공격수·3년)과 졸업생 최한빈(미드필더·고려대

2년), 정다빈(공격수·고려대 1년), 조어진(골키퍼·울산과학대 1년)이 선발됐다.

특급 드리블을 앞세운 조혜영은 이번 대표팀 고교생 3명 중 한 명으로 주목을 받는 선수다.

원발 슈팅력이 뛰어난 최한빈은 2선 침투 능력을 활용한 득점력도 강점이다. 174cm 피지컬을 보유한 정다빈은 몸싸움, 헤더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인다. 골키퍼 조어진은 승부차기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광양여고 4인방”은 지난 2021년 대회에서 활약한 고교 동문 추효주(현대제철), 박로영(한국수력원자력), 김가연(고려대 4년)의 뒤를 잇겠다는 다짐이다.

U-20 여자대표팀은 2010년 독일 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위’를 기록했었다.

당시 지소연을 앞세운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2승 1패를 기록한 뒤 멕시코야 8강전에서 3-1 승리를



광양여자고등학교 축구부 소속·출신 선수들이 오는 9월 1일 콜롬비아에서 개최되는 U-20 여자 월드컵에 출전한다. 왼쪽부터 조어진, 최한빈, 정다빈, 조혜영. <전남도체육회 제공>

거뒀다. 이후 4강에서 독일에 1-5로 패하면서 결승 진출은 이루지 못했지만 3-4위전에서 콜롬비아에 1-0 승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성적인 3위를 만

들었다. ‘4강 재현’을 외치고 있지만 최근 성적과 상대를 보면 ‘조별리그 통과’를 우선 삼아야 한다.

U-20 여자 대표팀은 지난 2010년 독일 월드컵 3위 이후 치른 2012년 일본·2014년 대회에서 8강 진출에 그쳤다. 2016년 파푸아뉴기니·2022년 코스타리카 대회에서는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다. 2018 프랑스 대회에서는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번 대회 상대도 만만치 않다. 조별리그 첫 상대인 나이지리아는 지난 2010년 독일·2014년 캐나다 대회에서 준우승을 기록했고, 마지막 상대인 독일은 미국과 함께 3번씩 왕좌에 오른 U-20 여자 월드컵 최다 우승 팀이다.

한국은 조별리그 통과를 위해 베네수엘라전 총력전을 예고한다. 베네수엘라 한국이 2016년 대회 조별리그에서 3-0 승을 거둔 전적이 있는 상대다. 베네수엘라전은 조별리그 통과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한편, 광양여고는 2021년 춘계대회 우승, 2022년 2관왕, 2023년 3관왕, 2024년 2관왕 등을 달성하며 국가대표 산실로 평가받는다.

권영민 광양여고 축구부 감독은 “광양여고 축구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쳐 반드시 2010년 대회 3위 입상 이상의 성적을 거둬달라”고 응원을 보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 안방서 기세 이을까

### 22~25일 전국 여자 천하장사 및 대학 장사 씨름대회...46개팀 357명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이 안방에서 열리는 전국 여자 천하장사 대회에서 한판 승부를 펼친다.

‘제16회 구례 전국 여자 천하장사 및 대학 장사 씨름대회’가 22일부터 25일까지 전남 구례군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46개 팀 357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전국 최초 여자씨름단인 구례군청 반달곰씨름 선수단 8명(김시우·선재림·설윤아·신유리·엄하진·이세미·장정인·최희화)도 이번 대회에 모두 출전한다.

대회는 22일 대학부 개인전과 단체전 예선을 시작으로, 23일 대학부 개인전과 단체전 결승이 진행된다.

이어 오는 24일 여자부 체급별 결승전이, 오는 25일에는 여자 천하장사 결승전이 열린다.

앞서 구례군청 선수단은 지난 12일 열린 ‘2024 민속씨름 삼척장사씨름대회’에서 활약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김시우는 삼척대회에서 매화장사에 등극했고, 국화급 이세미, 무궁화급 최희화는 각 체급 준우승

에 올랐다.

구례군청은 여자 단체전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구례군청 김승환 감독은 “매년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부담감이 크다. 그만큼 선수들도 열심히 준비했다. 통합에서는 최희화가 천하장사에 오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엄하진, 이세미도 국화급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다. 선수들 다 부상없이 대회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23일부터 25일 사흘간 오후 12시 55분부터 2시 55분까지 MBC SPORTS+채널과 유튜브 채널 ‘살바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김진기 기자 jinggi@kwangju.co.kr

## ‘벤투와 8년’ 외국인 수석코치 홍명보호 합류

### 포르투갈 출신 중앙 아로소·티아고 마이아

파울루 벤투 감독과 8년을 함께 했던 포르투갈 출신 수석코치가 홍명보호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보좌한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대한축구협회가 21일 축구 대표팀 외국인 코칭스태프를 선임했다.

포르투갈 출신으로 자국 대표팀을 비롯해 포르투갈 1부리그 팀에서 지도자로 활약한 중앙 아로소(52·사진 왼쪽) 코치가 수석코치 겸 전술 코치를 맡는다.

포르투갈 벤투파에서 코치와 분석관을 지낸 티아고 마이아(40·오른쪽) 코치는 전술분석 코치로 한국대표팀에 합류한다.

중앙 아로소 코치는 스포르팅 CP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0년부터 포르투갈 대표팀 코치를 맡아 2012년 유럽선수권대회 4강,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에 역할을 했다.

이후 포르투갈 15세 이하 대표팀과 모로코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 등을 거쳐 최근까지 포르투갈 1부 리그팀 FC 파발라라 테크니컬 디렉터로 활약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벤투 감독과는 스포르팅 CP와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8년 간 호흡을 맞췄다.

전력분석을 담당하게 된 티아고 마이아 코치는 스포르팅 CP, 비토리아 세투발 등에서 코치를 지냈으며 2018년부터 벤투파에서 연봉별 팀 코치와 분석관 등을 맡았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6일에는 박건하(51) 전 수원삼성 감독, 김동진(42) 킷치 FC 감독, 김진규(39) FC서울 전력강화실장을 대표팀 코치로 선임했다.

임시 감독 체제로 진행된 지난 6월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중국·싱가포르)을 함께 했던 양영민(50) 골키퍼 코치와 이재홍(41), 정현규(37) 피지컬 코치도 ‘홍명보호’에 합류했다.

박건하 코치는 2012년 런던올림픽과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서 코치로 홍명보호 감독을 보좌한 경험이 있으며 서울 이랜드, 수원 삼성 감독을 지냈다. 지난 6월 월드컵 2차 예선에서도 수석 코치를 맡았다.

국가대표 수비수로 활약한 김동진 코치는 2000년 서울의 전신인 안양 LG에서 프로에 데뷔해 제니트(러시아), 항저우(중국), 무양통(태국), 서울 이랜드 등에서 뛰었다. 2018년 홍콩 킷치 SC에서 은퇴한 그는 이후 킷치 SC에서 지도자 경력을 쌓았다.

김진규 코치는 선수 시절 각급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주장을 맡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온 국가대표 수비수 출신으로, 2017년 은퇴 후 서울에서 코치, 감독대행, 전력강화실장 등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한편 새로 선임된 외국인 코칭스태프는 이번 주말부터 K리그를 관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올림픽 금’ 양지인, 국내 대회서도 ‘금빛 총성’

###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여자 대학부 25m 권총 우승

2024 파리 올림픽 25m 권총 금메달리스트 양지인(21·한국체대·사진)이 한국 북극 후 첫 대회에서도 시상대 꼭대기에 섰다.

양지인은 21일 전남 나주 전남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여자 대학부 25m 권총 결선에서 33발을 명중해 우승을 차지했다.

앞서 열린 본선에서도 586.0점으로 압도적인 성적을 낸 양지인은 결선에도 2위 김소희(충북보과대·28살)보다 5발 이상 앞섰다.

양지인은 한국체대 동료인 이현민, 김민서, 이연주와 함께 단체전에서 1737점을 합쳐해 대회 2관

왕에 올랐다.

한편 전날 열린 여자 일반부 25m 권총 결선에서는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나란히 고배를 마셨다.

파리 올림픽 공기권총 10m 여자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오예진(IBK기업은행)은 6위, 공기권총 10m 여자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한 김예지(임실군청)는 4위를 했다.

김예지는 본선에서 590.0점을 쏘아 대회 신기록이자 전체 1위로 결선에 올랐으나, 결선을 4위로 마쳤다.

## 신진서 ‘복수혈전’

### 중 구썬하오 잡고 란커배 우승

신진서 9단이 중국의 강호 구썬하오 9단에게 당한 패배를 1년 만에 되갚았다.

신진서는 21일 중국 저장성 취저우에서 열린 제2회 취저우 란커배 세계바둑오픈전 결승 3경기 제2국에서 구썬하오에게 191수 만에 흑 불계승했다. 이로써 신진서는 종합 전적 2-0으로 란커배 우승컵을 차지했다.

신진서는 초반 팽팽한 균형을 이어가다 상변 전투에서 득점에 미세하게 앞섰다.

불리해진 구썬하오가 강수를 연발하는 가운데 신진서는 중앙 전투에서 정확한 수읽기로 상대의 허를 찔러 승부를 결정지었다.

신진서는 지난해 열린 제1회 란커배 결승에도 올랐으나 구썬하오에게 1국 승리 뒤 2,3국을 내리 패해 역전패했었다.

대국 후 신진서는 “란커배 결승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왔는데 이렇게 우승하게 돼 기쁘다”라며 “전기 대회 준우승의 아쉬움을 털어내서 다행이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진서는 이번 우승으로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 횟수를 7회로 늘렸다.

국내외를 통틀어서는 통산 38번째 우승이다. 란커배 우승 상금은 180만위안(약 3억4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60만위안(약 1억1300만원)이다. /연합뉴스

## 문체부, 대한배드민턴협회 보조금법 위반 의혹 조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보조금법 위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21일 “협회가 보조금 정책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지 살피는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협회가 정부 사업으로 셔틀콕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전체 30%에 달하는 물량을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해 추가로 받았다는 내

용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서도 들어왔던 제보”라며 “30%를 더 받은 것, 이를 장부에 남기지 않고 임의로 나누는 것 등 사실을 살펴 보조금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보조금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했는지가 관건이다. /연합뉴스

즐거움

# 문화 산책

## 광주예술의전당

###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 : 피어오르다

일시 : 2024-08-16(토) ~ 2024-09-15(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2024 광주상설공연(8월)**

일시 : 2024-08-03(토) ~ 2024-08-31(토)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 8.8.(목)-9.(금) 오후 5시 여름기획공연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영·호남 장애작가 미술교류전

## 피어오르다

시공주최: 문화체육관광부

2024. 8. 16(토) ~ 9. 15(일)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